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8:12-25(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2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빛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17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8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1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런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22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24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 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나요?(14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 _____

-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특권을 무엇이라 말하나요?(15-17절)

→ _____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16절)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_____

- 일상에서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유혹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 _____

-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18절)고 말합니다.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 _____

-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린다”(25절)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 소망이 현재의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피조물이 "함께 신음한다"(22절)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8:12-25(하나님의 후사, 소망과 인내)

양자 된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통일되는 그 날을 인내로써 기다리라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피조물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때 피조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피조물은 고통스러운 기대 속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또한 피조물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까닭에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며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에서 내면의 싸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신앙인들은 문화 명령에 근거하여 이 땅의 기후 위기, 생태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들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분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선한 일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시며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뿐임을 기억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6. 기도